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7호 【루계 제25480호】 주체105(2016)년 12월 2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들의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훈련명령을 높이 받들고 2017년도 전투정치훈련에 일제히 진입하여 훈련혁명의 불길, 군력강화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백두산혁명강군의 전투력을 무진막강하게 다져나갈 천만장병들의 거세찬 훈련열, 투쟁열이 전군에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파멸의 나락에 굴러떨어지면서도 차 불장난질로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미쳐날뛰는 남조선 박근혜역적패당에 대한 증오를 한껏 폭발시키며 백두산총대의 멸적의 회성이 울렸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2월 1일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들의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륙군상장 리영길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륙군중장 박정천동지와 조선인민군 군단장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은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이 시작된 첫날이라고 하시면서 《훈련도 전투다!》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전군의 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총대로 조국과 인민을 사수하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인민군대에 있어서 훈련강화는 혁명의 운명, 혁명무력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대, 구분대들이 당의 훈련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훈련을 드세게 내밀어 전군이 백두산훈련열풍으로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7년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5돐, 조선인민군창건 85돐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하시면서 필승의 신심드높이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다음해를 전투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이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에 진입한 날에 울리는 장쾌한 포성은 전군의 장병들을 당의 훈련명령관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대에 오르시여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들의 화력진지배치상태와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km의 해안가에 즐비하게 늘어선 수백문의 대구경자행포들을 바라보시며 불만 하다고, 요란하다고, 마치도 포무기주단을 펼쳐놓은것만 같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패의 위용을 떨치며 진지를 차지하고있는 저 포무기들에는 인민군대의 포병무력강화를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가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싸움의 날 명중포성만을 울리는것으로써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군형도업적을 빛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전선포병부대들의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린 가련한 제집안의 처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부질없는 전쟁깨기를 부리며 또다시 서남전선수역 우리의 면전에서 무모하고 몰망스러운 포사격질을 해댄 남조선괴뢰역적패당에게 우리 천만군민의 무서운 보복열기와 백두산총대의 위력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로 되며 엄중한 최후의 경고로 전달될것이다.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에는 남조선괴뢰 서북도서방위사령부관하 6해병려단과 연평부대를 쓸어버릴 임무를 맡고있는 서남전선수역 최전방의 섬방어대 포병구분대들과 서울시를 비롯한 전선주타격방향과 보조타격방향의 남조선작전지대 군사대상물들과 반동통치기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있는 전선중장거리포병구분대들이 참가하였다.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은 일제사격과 급속사격으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내리신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들이 드디여 섬멸의 포문을 열었다.

2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선포병부대들의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을 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포연자욱한 포진지와 하늘과 땅, 바다에서 천둥같이 울리는 폭음은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속에 다져진 증오와 분노, 참을길 없는 보복일념의 강렬한 메아리였으며 멸적의 강철포신들에서 내뿜어진 시뻘건 불줄기는 가증스러운 원쑤들에게 가장 비참한 종말을 안기는 준엄한 철추였다.

지진이 일어난듯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에서는 우뢰가 울었으며 흙먼지가 삽시에 포진지를 휘감았다.

목표섬에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화광이 충천하고 황토먼지가 타래쳐올랐다.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남해상의 5개섬과 조선인민군 주타격방향에 놓여있는 적들의 도시들과 군사대상물들, 반동통치기관들이 통채로 불바다에 잠기는듯 한 통쾌한 순간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한한 광경이요, 대단하오 대단해, 저속에서 무엇이 남아나겠소,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남조선것들을 저렇게 탑새겨야 하오, 첫 타격에 남조선것들의 대응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고 그래도 단말마적으로 발악하는 놈들이 있다면 아우성칠 놈, 비명지를 놈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려야 하오, 우리 영용한 포병들이 겨냥하는 곳마다가 적들의 송장더미로 되게 해야 하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적들의 소굴에 무자비한 포병화력타격을 들이대여 그속에서 더러운 원쑤들의 그림자도 찾아볼수없이 비지루질하겠다는 리성국 조선인민군 제4군단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결심이 좋다고, 정의의 전쟁의 발발과 함께 서남전선포병부대들이 떠쳐올리는 승전의 포성은 남진하는 인민군부대들에 날개를 달아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은 일단 시작만 하면 단숨에 적진을 불바다로 만들고 조국통일대전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 백두산혁명강군의 결전의지와 전투실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포사격경기와 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포병으로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고 포병의 축포사격으로 조국통일의 승리를 경축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포병중시관, 포병철학이라고 하시면서 조국통일대전에서 인민군대의 무쇠주먹인 포병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배우 크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전선과 후방이 따로없이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현대전쟁에서 포병의 활용은 작전과 전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포병무력강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훈련지도를 받은 인민군지휘성원들과 포병전투원들은 전투정치훈련에서 당의 5대훈련방침과 4대훈련원칙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 전쟁환경에 접근한 실전적훈련을 힘있게 벌려 수령결사옹위의 총대,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 사회주의조국수호의 총대를 더욱 날카롭게 벼림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이룩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돌격대에 한원한 대외건람총국 산하단위 조광세, 안항미, 정양도시설계연구소 설계원 리정국, 무역은행 부원 리지혜는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 적극 참가하였다.

형제산구역상하수도관리소 로동자 김일심은 힘든 일에 앞장서면서 건설자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좋은 일을 찾아하였으며 해주시사회급양관리소 지배원 김은주는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원사업에 앞장섰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기어이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건설자들을 돕는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여기고 해주시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부원 렴성희는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뜨거운 혈육의 정을 기울였다.

남산병원 의사 김철민은 백일해국련사유카족으로서 받아안은 당의 은덕에 보답할 한마음안고 성의껏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를 여러차례에 걸쳐 건설장에 보내줌으로써 전투원들의 혁명적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우기 위한 대자연개조투쟁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하는 심정으로 체신성 산하단위 기술원 리해섭은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개성시사회급양관리소 로동자 최명희는 고산땅을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전변시키는 사업에 성의있는 지원을 하여 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었다.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시대의 벅찬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평안남도무역관리국 부원 안향은 온 가족의 지성이 어린 많은 후방물자들을 보내주는 소행을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영광과 감격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해 적극 헌신해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대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꾸알라 룸뿌르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대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를 통하여 귀 당 최고리사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은 《하나의 말레이시아》의 구호밑에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며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과 말레이시아전국말라이통일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날로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활동과 귀 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5(2016)년 12월 1일 평 양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삶과 투쟁의 표대,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각지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삶과 투쟁의 표대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새겨주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대중의 정신력이 남김없이 발양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당조직들과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함남의 불길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로 높이 들고나가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고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중요단위들에 나간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학습하여 그 진수와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실천을 통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는것을 절감한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롤전해공정보수를 20일만에 끝내고 가스화공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에 대한 설비집중보수를 본때있게 내밀어 한달동안에 해제끼는 자랑찬 성과를 거둔 기세를 늦추지 않고 200일전투목표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함흥모방직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에서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대중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에 고무된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200일전투목표에 반영된 비날론과 염화비닐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드높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로동자들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영예를 안고 생산돌격전을 벌려 지난 8월말까지 200일전투목표를 101.8%로, 년간 공업총생산액계획을 120.3%로 넘쳐 수행하였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상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갱막장들에 나간 도당위원회일군들은 탄부들속에 평안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생산이 기본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새겨주면서 200일전투의 승리적결속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200일전투에서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긍지를 안고 일군들과 탄부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상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고있는 제남탄광과 덕천탄광기계공장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모든 탄광의 갱, 중대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고 혁신자축하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고 후방사업을 잘하여 탄부들의 생산의욕을 부쩍 높여주었다. 이에 고무된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11월 30일현재 11개의 청년돌격대와 청송탄광, 덕천지구탄광건설사업소, 탄광부재공장, 덕천탄광기계공장, 서창영예탄부공장과 7개의 갱, 27개의 채탄중대가 200일전투목표를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하여 올해에만도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와 대동강식료공장을 비롯한 40여개의 단위가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고 수십개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판정기준에 도달하게 되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전국의 본보기가 될수 있게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일군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진행하는 해설강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그대로 관철해나갈 결사의 각오를 굳혀주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당위원회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정형을 따져보고 철저히 집행해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온 공장에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고있다. 만리마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공장에서는 5년분계획완수자, 4년분계획완수자, 3년분계획완수자, 2년분계획완수자, 년간계획완수자, 200일전투목표완수자들이 수많이 배출되였다.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당조직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의 협동농장당조직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해나가고있는 각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은 총정의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신념의 불기둥은 변색을 모른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낮이나 밤이나 전력생산의 동음 힘차게 울려퍼지는 북창!

만리마를 탄 기세로 200일전투의 결승선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대동력기지의 전투장마다에서 신념의 불기둥이 활화산마냥 치솟는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다진 맹세 목숨바쳐 지켜갈 불타는 일념안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이곳 전력생산자들의 가슴마다에 12월과 더불어 한없는 그리움의 대하가 세차게 굽이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감격도 새로운 주체98(2009)년,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며 8월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몸소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로동계급이 설비관리를 잘하고 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려 전력생산을 부단히 높이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해주시고 로동자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문화후생시설들을 훌륭히 일떠세워 충분한 문화휴식조건을 보장한데 대해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위치와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기에 전력생산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빛나는 예지로 환히 밝혀주시지 않았던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릴수 있도록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은정은 이곳 로동계급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근본원동력으로 되였다.

위대한 태양의 그 영상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있기에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당과 혁명의 부름앞에 오직 결사관철로 화답해나서며 전력증산의 불길높이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억세게 지켜나갔다.

특히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총정의 7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려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빛나게 초과완수하고 전형단위의 고귀한 영예를 지니는 자랑을 떨치였다.

련합기업소의 전투장들이 혁명열, 투쟁열로 세차게 끓어번지는 속에 120℃를 헤아리는 화실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15시간만에 호기를 살려낸 희생적인 투쟁과 저주파유도로에서 뜻밖에 발생한 폭발로 쇠물이 흘러져나오는 위기일발의 순간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로를 살려내고 참다운 생을 빛내인 영웅적위훈들이 창조되였다.

이곳 로동계급은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높이 총정의 200일전투에 총궐기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년간대보수과제를 빛나게 완수하고 매일 막대한 량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북부전역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하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렇다. 북창에 타오르는 신념의 불기둥은 언제나 변색을 모른다. 영광의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전력증산으로 억세게 받들어가는 북창의 미더운 로동계급.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비약의 한길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이들의 불보다 뜨거운 애국충정과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북창의 대동력기지는 거센 열기를 내뿜으며 오늘의 총진군에 힘찬 활력을 더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영광의 대지에 언제나 풍요한 가을을

각지 농촌의 본보기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그리움에 불타는 12월의 전야에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전례없는 알곡증산성과를 이룩하며 온 한해 드바삐 달려온 각지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가고있다. 특히 령도업적단위들이 그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문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것입니다.》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이 유훈관철전의 불길높이 다음해 농사차비전투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삼지강협동농장은 자신의 안중에 있는 협동농장이라고 하시며 사랑의 뜨락또르들을 보내주시고 농사를 잘 지어 전국의 본보기농장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도록 고무격려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해결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농장에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울 일념안고 올해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른 기세드높이 다음해농사차비전투에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농장일군들은 두벌농사지치, 모판자리 등 가을갈이면적타산을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일정계획을 빈틈없이 세웠다. 지난 시기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이런 포전들의 가을갈이를 잘해야 농작물의 뿌리발육을 좋게 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다는것을 깊이 깨달은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이 사업에 특별히 큰 힘을 넣고있다. 우량품종의 종자들을 확보하고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기 위한 전투도 동시에 힘있게 내밀고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드넓은 협동벌에 가을갈이를 다그치는 뜨락또르들의 발동소리가 우렁차게 울려퍼지고있다.

더 많은 알곡을 증산하는데서 가을철토양관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일군들은 가을갈이목표를 높이 세우고 땅이 얼기 전에 한평이라도 더 갈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여러대의 뜨락또르들로 편대를 뭇고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연유와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하며 합리적인 갈이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기술지도를 앞세워가고있다.

미곡협동농장은 나의 정든 농장이라고 하시며 거듭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세세년년 풍년로적가리를 높이높이 쌓는것으로써 보답할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불타는 열의로 하여 가을갈이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오르고있다.

올해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한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도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불어치고있다.

땅에 유기질성분이 많으면 화학비료를 적게 치고도 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는것을 알고있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지력을 높이기 위한 거름생산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특히 올해 새로운 미생물비료생산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농장의 많은 포전에서 정보당 0.5~1t의 알곡을 증수한 경험에 토대하여 이 발효퇴비생산을 적극 내밀고있다. 올해농사에서 이 퇴비의 덕을 본 작업반, 분조들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의 불길을 온 농장에 세차게 지펴올린 결과 이 사업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통천군 신암,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도 어버이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의 자욱이 력력히 어린 영광의 대지에 언제나 풍요한 가을만을 펼쳐갈 드높은 자각과 열의를 안고 12월의 하루하루를 혁신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한없는 그리움으로 새겨온 위훈

룡양광산에서

룡양!

불러만 보아도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가 뼈저리게 어려와 눈물부터 앞서는 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함남의 불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따라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며 특히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수수한 안전모를 쓰시고 6월5일갱의 석수떨어지는 막장길을 걸으시며 채굴의 대형화, 현대화정형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채굴공업의 발전방향을 명백히 밝혀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2년후인 2011년 10월,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광산에 찾아오시여 또다시 안전모를 쓰시고 금산갱의 막장길을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각별한 관심속에 채굴의 대형화, 현대화의 큰걸음을 힘있게 내짚은 광산로동계급이기에 12월에 들어서면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그 누구보다 강렬하다.

지배인 장춘근동무를 비롯한 광산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채굴의 대형화, 현대화를 더욱 빛나게 실현하고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 과학기술보급실 등을 훌륭히 일떠세워 광산의 면모를 다시한번 일신시키기 위한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떨쳐나선 광산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는 불이 일었다.

금산갱, 청년갱, 4.5갱에 이어 돈산갱의 대형화, 현대화투쟁이 과감히 벌어질 때였다.

사갱으로 되여있는 돈산갱의 경화장공사는 제일 품이 많이 드는 전투였다.

비탈진 막장길을 따라 버력을 운반해오고 마구리마다 채굴장을 형성하는 전투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각오해야 하였다.

함남의 불길과 더불어 어버이장군님께서 시대의 맨 앞장에 내세워주신 선구자들이 이런 때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백금산로동계급이다.

이들의 심장속에서 울려나오는 이 뜨거운 말속에 위대한 장군님께 못다한 충정과 시대앞에 지닌 본분을 다하려는 불타는 자각이 어려있었다.

일군들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경화장공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앞질러가며 보장해주는 한편 후방사업에도 힘을 넣어 굴진공들이 배심든든히 압력을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광산로동계급은 돈산갱의 대형화, 현대화를 빠른 기간에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완강한 투쟁을 벌려 끝내 기름진 광석밭을 마련하고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생산의 우렁찬 동음을 울리였다.

채굴의 대형화, 현대화실현에서의 자랑찬 성과.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대로 이 땅우에 하루빨리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데 모든것을 다 바칠 결사의 각오가 안아온 귀중한 성과이다.

가슴벅찬 올해에 광산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과학기술보급실을 비롯한 여러 대상건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광산의 면모도 다시한번 일신시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들여 키워주신 백금산로동계급답게 그이의 유훈을 결사관철하는 길에서 시대의 불길이 되여 힘차게 내달리려는 광산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각오는 더욱 비상해지고있다.

앞으로도 룡양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 불변의 의지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충직한 전우, 동지가 되여 백금산을 더욱 빛내여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리철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 단장이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을 만났다

【아바나 11월 30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꾸바혁명의 최고지도자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서거에 조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 단장으로 꾸바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는 11월 30일 국가리사회청사에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쌀바도르 안또니오 발데스 메싸동지를 만났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에게 보내시는 위문말씀을 최룡해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쌀바도르 안또니오 발데스 메싸동지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대사관을 조의방문하시고 당 및 국가대표단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꾸바당과 인민의 이름으로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그는 김정은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각별한 관심속에 세계 그 어느 나라들과도 대비할수 없는 가장 공고하고 형제적인 관계를 맺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은 계속 강화발전되고있다고 말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꾸바에 돌려주시는 배려와 조선인민이 꾸바인민에게 보내는 진정한 국제주의적지지성원에 다시한번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체의 힘으로 하루빨리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꾸바는 인민을 위한 나라를 세우고 인민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변함없이 계승할것이며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중앙추모대회 진행

【아바나 11월 30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꾸바혁명의 최고지도자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11월 29일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 있는 혁명광장에서 중앙추모대회가 진행되였다.

추모대회에는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 100여만명의 아바나시민들과 군인들, 청소년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을 비롯한 50여개 나라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대표단, 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대표단 단장들의 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서거는 꾸바인민뿐아니라 전세계인민들의 슬픔이라고 하면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꾸바혁명과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데 대해 찬양하였다.

그들은 꾸바인민이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사상과 유훈을 받들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계속 힘차게 전진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대회에서는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생애는 꾸바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식민주의와 인종격리를 반대하여 싸워온 한생이라고 하면서 꾸바인민은 그의 위업을 계승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용감하고 전투적이며 영웅적인 꾸바인민과 함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계속 전진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추모대회참가자들은 《피델은 우리들의 심장속에 영생할것이다》, 《피델 만세!》, 《라울 만세!》, 《꾸바 만세!》라는 구호들을 웨쳤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기념
사진전람회 개막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기념 사진전람회 《태양과 오곡백과》가 개막되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여 주체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시며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모신 사진문헌이 전람회장에 정중히 모셔져있다.

전람회장에는 혁명적농민조직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년대기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 당의 믿음직한 옹호자, 방조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원불멸할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7차대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농업근로자동맹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전하고 있다.

《평안남도 대동군농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농민들과 함께 모를 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등의 사진문헌들은 해방후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고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포전길을 걸으시며 농업근로자들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핵심력량으로 억세게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깊이 새겨주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계승하시여 이 땅우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온 나라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가 《강원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사리원시 미루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등의 사진문헌들에 뜨겁게 어리여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가시며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적풍모를 절감하게 하는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을 축하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이 전람회장에 모셔져있다.

전람회장에는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돌격해나가고있는 농업근로자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140여점의 사진들도 전시되여있다.

개막식이 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농근맹일군들, 농근맹원들, 평양시안의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총정의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는 시기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를 맞으며 사진전람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 농업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을 대중적정치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의 꽃재배에 바쳐가는 진정
= 재정성 일군들과 종업원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자기의 령도자를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따르는 인민은 없습니다.》

며칠전 재정성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찾았던 우리는 태양의 꽃재배에 바쳐가는 성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였다.

가장 선차적인 사업으로

지난 5월 성당조직에서는 총정의 200일전투기간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함으로써 보다 훌륭한 재배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결정을 내렸다.

총정의 200일전투목표수행을 위한 가장 선차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된 온실개건전투에 성안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리정길, 황보명초, 고철성동무를 비롯한 성일군들의 높은 요구성과 구체적인 조직사업, 이신작칙의 모범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길이 빛내이는 그길에 혁명전사의 가장 큰 영예와 보람이 있다는 참된 삶의 진리를 말없이 가르쳐주었다.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는 수백㎡의 토방처리와 보이라개조, 정면벽과 계단완성, 화대설치를 비롯한 방대한 공사를 불과 석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끝내는 놀라운 성과를 안아왔다.

이른새벽에 찾아온 사연

재정성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책임자인 박순철동무는 온실개건의 나날에 바쳐진 성일군들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온실에 모든 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진 과학기술보급실이 훌륭하게 꾸려진 이야기며 원예사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세라 문화기재들을 마련해준 이야기…

그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개건공사가 마무리되고있던 어느날 이른새벽이였다.

기별도 없이 불쑥 온실에 들어서는 성의 책임일군을 맞이한 박순철동무는 그가 안겨주는 무게두터운 한권의 책을 받아들었다.

《내 이번 출장길에 좋은 책을 한권 얻었는데 아마 김정일화재배에 도움이 될거요.》

(그럼 이 책을 주려고 이른새벽에…)

하루가 멀다하게 훌륭히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에 찾아와 갖가지 화초재배에 유리한 생태환경조건과 병해충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알기쉽게 이야기해주던 박식한 일군이였다. 얼마전에는 많은 후방물자를 안고 달려오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새벽에…

그는 책임일군이 주고간 책을 보고 또 보며 오래도록 서있었다.

한 마 음

《어제도 여러 부서성원들과 함께 온실에 왔댔습니다. 하루에 몇번씩 다녀도 이런 운행길은 도무지 힘들지 않고 성수가 나군 합니다.》

성의 운전사가 하는 말이였다. 태양의 꽃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성안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보석같은 진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눈앞에 복도에 전시된 상장들이 안겨왔다.

눈여겨볼수록 그 상장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주는듯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불타는 충정의 마음들이 모이고 합쳐져 번듯한 온실이 일떠서고 한겨울에도 이런 이채로운 꽃풍경을 펼쳐놓을수 있었다고.

김 성 룡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속에 끝없이 울리는 배움의 종소리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의 학교들에서 개학식 진행

【평양 1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세상천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화원을 가꾸어가는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복받은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내 나라의 맑은 하늘가로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친어버이정으로 새 세대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고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은정속에 혹심한 재난의 파도가 휩쓸었던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곳곳에 새로 건설되고 개건보수된 학교들에서 첫 수업이 시작되였다.

피해지역의 인민들이 희한한 별천지에서 만복을 꽃피우고 그들의 자식들을 위한 수많은 학교들이 배움의 요람으로 꾸려져 한날한시에 개학하게 된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온 나라를 기쁨과 환희로 들끓게 하는 전인민적인 대경사이다.

후대들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부전역에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인민의 보금자리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면서 피해지역 아이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뜻밖에 재앙을 당한 어린 마음들에 그늘이 질세라 그 누구보다 마음쓰시며 수많은 식료품과 당과류, 담요, 교복, 학용품을 보내주시며 이 세상 천만부모의 사랑에도 비기지 못할 육친의 정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은 정녕 끝이 없었다.

우리 당이 재해지역 학생들의 교육실태도 세심히 보살펴주면서 아이들의 랑랑한 배움의 글소리가 중단없이 울리도록 하기 위해 학교들에 손풍금을 보내주고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자녀들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불러준 소식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며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선군조선의 역군으로 키우시기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정속에 새 세대들이 배움의 나래를 더 활짝 펴게 된 로동당시대의 새 전설이 또다시 꽃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훌륭히 일떠선 학교들의 개학식이 1일 현지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회령시 송학고급중학교, 강안고급중학교, 성북고급중학교, 무산군 주초소학교, 강선소학교, 풍무고급중학교, 룡암고급중학교, 차유고급중학교, 특소고급중학교, 지초고급중학교, 연사군 신양소학교, 평양고급중학교, 서안고급중학교, 온성군 룡천고급중학교를 비롯한 수십개 학교들의 개학식장들은 기쁨에 넘친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형들로 설레이고있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다심한 학부형이 되시여 끝없는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과 정으로 새 세대들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어려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개학식장들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리주오내각부총리, 최동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승훈 함경북도당위원회 위원장, 리상판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중앙과 지방의 일군들, 교직원, 학생들, 학부형들, 건설자들이 개학식들에 참가하였다.

개학식들에서는 축하발언들과 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들과 토론자들은 조국의 북변땅에 펼쳐진 오늘의 대경사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혁명적당풍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천품으로 지니고계시는 숭고한 후대사랑과 미래관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하였다.

뜻밖의 재난을 당한 인민들의 불행을 하루빨리 가셔주시기 위해 그 누구보다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의 살림집건설과 함께 교육, 보건시설건설을 다그치며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도록 혁명적조치를 취해주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달음에 북변땅으로 달려온 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이 속도보다 먼저 살림집과 학교의 터전을 닦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철야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새 교사들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북부전선에서의 치렬한 복구전투를 진두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재난을 당한 피해지역의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에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넓은 품을 통채로 열어주시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축복속에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후대들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완공을 눈앞에 둔 려명거리보다 먼저 조국의 북변땅에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새 살림집들과 학교들이 일떠섰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들과 토론자들은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소년들, 학부형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가장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시고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연설자들과 토론자들은 따사로운 어머니당의 품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있기에 아이들의 밝고 창창한 앞날이 굳건히 지켜질것이라고 하면서 일편단심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정다해 높이 받들어모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교직원들이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교수교양을 짜고들어 학생소년들로 하여금 오늘의 기적적승리가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똑똑히 알게 하며 모든 학생들은 열심히 학습하여 선군조선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억세게 준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교정들을 대를 이어 배움의 종소리 높이 울려갈 행복의 요람으로 알뜰히 관리하며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그 면모를 더욱 일신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학부형들이 자식들로 하여금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된 력사의 땅에서 배우며 자라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학습과 과외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교양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과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덕속에 꽃펴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새 전설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더욱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피해지역의 학교들, 분교들에서 배움의 종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지는 속에 교정의 문들이 활짝 열리였다.

해빛밝은 교실들로 들어서는 학생들을 일군들과 교직원, 학부형들이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훌륭히 갖춘 교육시설들을 바라보며 학부형들과 피해지역 인민들은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에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학생들과 교직원들, 학부형들 모두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며 후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어버이사랑속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누리게 된 감격과 기쁨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일군들과 교직원들, 학부형들이 첫 수업을 참관하였다.

인민사수, 인민복무의 기적과 더불어 조국의 북변천리에 울려퍼지는 배움의 종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길이 전하며 끝없이 메아리쳐갈것이다.

김정숙도서관 꾸바에서 개관

김정숙도서관이 11월 25일 꾸바 김일성고등학교에서 개관되였다.

개관식에는 꾸바 제 인민간의 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김일성고등학교 일군들, 군중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꾸바 김일성고등학교 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학교에 김정숙도서관을 내온것은 우리들의 자랑이며 긍지이다.

우리 교직원, 학생들은 도서관을 통하여 조선의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에 대해 더 잘 알게 될것이다.

또한 발전하는 조선의 현실에서 많은것을 배우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지난 9월에 진행된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을 걸고드는 《제재결의》를 조작해냈다.

이것은 미국의 손탁에 놀아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의 권능을 벗어나 우리 공화국의 자위권을 부정한 또 한차례의 월권행위, 주권침해행위로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지난 9월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핵탄두폭발시험은 우리 국가의 자위적권리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핵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여있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초강경의지의 과시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핵시험을 포함한 국방력강화조치들과 같은 주권국가의 자위권행사를 금지시킬 그 어떤 권한도 없으며 유엔헌장과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핵시험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것이 없다.

지금까지 모든 상임리사국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핵시험과 로케트발사를 수천번 진행했으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그것을 금지한적은 단 한번도 없다.

블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절반적유엔성원국들이 국제법우에 군림하여 렬강들의 정치적도구로 도용되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시급히 개혁할것을 절절히 요구하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치가 아니라 힘과 강권으로 좌우지되는 현 국제판계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자면 힘이 있어야 하고 적대세력의 핵위협에는 핵으로 대응하게 되여있다.

우리가 핵무장을 국가로선으로 내세우고 만난을 극복하면서 강력한 억제력을 갖춘것이 천만번 현명하고 정당한 선택이였다는것이 현실로 증명되고있다.

오바마와 그 졸개따위들이 비렬한 제재압박으로 우리 국가의 핵무장로선을 포기하게 하거나 핵강국의 지위를 허물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오산은 없을것이다.

우리는 그놈들과 어떠한 상종도 하지 않을것이며 우리가 택한 정의의 길로 더욱 힘있게 나갈것이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전면부정한 이번 《제재결의》조작은 우리의 보다 강력한 자위적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것이다.

제재는 불피코 긴장격화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정세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 그 책임은 《제재결의》조작의 주모자인 미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것이다.

주체105(2016)년 12월 1일
평 양

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토론회-2016 개막

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토론회-2016이 개막되였다.

《집단적경쟁열풍, 병해충구제, 토양관리》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병해충구제와 토양관리에 대한 강습과 강의, 과학연구성과와 경험발표회, 다매체편집물시청이 있게 된다.

개막식이 12월 1일 농업과학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곽범기동지와 계희남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계영삼 농업과학원 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각지 온실남새연구 및 생산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관리공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고인호내각부총리 겸 농업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타는 일념안고 천만군민이 맡은 혁명초소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시기에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온실남새재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과학기술토론회를 통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의도를 받들고 기술실무수준을 더욱 높이고 온 나라에 온실남새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토론회-2016은 7일까지 진행된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기네대통령을 작별방문

김준갑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1월 26일 알파 콘데 기네공화국 대통령을 작별방문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알파 콘데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정중히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축원하는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그이께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나라의 통일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앞으로의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기네정부와 인민은 변함없이 조선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할것이며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형제적 조선인민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세계에이즈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세계에이즈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보건부문, 련관단위 일군들과 주조 세계보건기구대표,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에이즈에 의한 사망률을 줄이는것은 현시기 모든 나라들앞에 나서는 공동의 과업이라고 하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비루스의 감염과 전파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행사에서는 록화편집물이 방영된 다음 에이즈예방활동에 관한 기술적인 자료들이 발표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된 선전화들과 대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았다.

한편 이날 중앙과 각 도위생선전관들에서 에이즈예방에 대한 집중선전활동이 진행되였다.

총련 조선통신사 대표단 도착

조선중앙통신사창립 70돐기념행사에 참가할 최홍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통신사대표단이 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림호룡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 맞이하였다.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도착

오형덕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이 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북풍》조작으로 살구멍을 찾아보려는 괴뢰보수패당의 어리석은 망동은 민심의 분노를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뿐이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담화

지금 온 남조선땅은 천하역적 박근혜년과 보수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증오로 불도가니처럼 이글거리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의 박근혜퇴진투쟁과 야당들의 탄핵공세에 급해맞은 괴뢰보수패당은 《북풍》조작으로 시시각각 조여드는 숨통을 열어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새누리당》내 박근혜패거리들은 남조선 각계층의 대규모초불시위를 《배후세력의 선동에 의한 내란》으로 매도하며 《민주로총의 뒤에 곧 조종세력이 있고 야당들의 뒤에는 준비된 북의 공작원이 있다.》, 《중, 고등학교학생들의 배후에도 종북주의교사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모략나발들을 매일과 같이 줴쳐대는가 하면 《북이 남파간첩들에게 보내는 암호지령방송까지 재개하고 총궐기지시를 내리고있다.》고 하면서 날로 고조되고있는 전민항쟁이 《북의 조종》에 의해 벌어지고있는것처럼 여론화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한편 극우보수단체패거리들은 각계층의 박근혜퇴진투쟁이 《종북좌파들의 국가전복기도》와 관련되여있다느니, 《주력은 12만 종북간첩단》이라느니 하면서 마구 날조해대고있으며 지어 인터네트를 통해 《집회장소인 광화문광장에서 북의 고정간첩이 흘린 로동당 당원증이 발견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류언비어까지 퍼뜨리고있다.

미친개도 죽을 때는 똥을 싸갈기고 죽는다고 괴뢰패당의 꼬락서니가 꼭 그 격이다.

극도의 위기에 몰릴 때마다 《북풍》조작에 매달리는 괴뢰보수패당의 상투적인 수법에 이제는 남조선 각계층이 진저리나 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이 한사코 《북의 조종》이니, 《배후세력》이니 하고 떠들어대는것은 그야말로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의 경각에 달하였기때문이다.

박근혜의 보수패거리들이 줴쳐대는 《북풍》모략나발은 너무도 황당하여 삼척동자도 코웃음을 칠 지경이다.

초불시위참가자들가운데 주류를 이루는것은 《12만의 종북간첩단》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고있는데 12만은 고사하고 12명만 되여도 보수패당은 아마 기겁하여 나자빠졌을것이다.

한두명도 아니고 100만, 200만이 《북의 조종과 지령》에 의하여 일시에 초불시위투쟁에 나섰다면 남조선사회가 완전히 《북체제화》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것을 과연 누가 곧이듣겠는가 하는것이다.

괴뢰패당의 《북풍》소동, 반공화국모략선전은 모든것이 다 이런 식으로 날조되고있다.

리명박패당이 《천안》호침몰사건이 발생하자 덮어놓고 《북의 어뢰공격》으로 몰아붙인것이나 박근혜패당이 통합진보당을 없애버리기 위해 내든 《내란음모설》, 그 무슨 《농협은행전산망해킹설》등 보수패당이 지금까지 꾸며낸 각종 《북풍》조작품들이 그러하다.

오죽하면 여론들이 그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아마 세상에 없는 해괴한 《모략잡화점》이 될것이라고 야유하고있겠는가.

이번에 남조선에서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이 터지고 야당들이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나섰을 때에도 《새누리당》패거리들은 《북을 상국으로 모신다.》느니, 《뇌의 주파수가 북에 맞추어져있다.》느니 하며 덮어놓고 《종북》감투를 뒤집어씌우려고 발버둥쳤다.

《종북》딱지를 갖다붙이는 보수패당에게는 그것이 사실이고 아니고 하는것은 애당초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저 검은것도 희다고 우겨대며 무작정 물어뜯고볼 판이라는것이다.

이제는 《북풍》조작에 환장하여 나어린 중, 고등학교학생들까지 《꼭뒤에 피도 안마른 종북세력》, 《좌파간첩》으로 몰아대고있다.

문제는 이러한 《북풍》모략광대극이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박근혜년의 지휘조종에 따라 청와대졸개들에 의하여 고안되고 청와대의 지령밑에 《새누리당》것들과 극우보수단체패거리들에 의해 연출되고있다는데 있다.

특대형정치추문사건으로 만신창이 되여 총파산에 직면한 보수패거리들이 모두 달라붙어 《북풍》조작에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 보수의 총본산인 《새누리당》대표 리정현놈이 당내형편을 매일 청와대에 꼬박꼬박 보고하고있다는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다 망해가는 판국에도 《새누리당》내에서 《박근혜가 퇴진하면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된다.》, 《종북세력에게 정권을 넘기면 안된다.》는 광기어린 망발들이 계속 튀여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 모든것은 박근혜년과 보수패당이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민심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별의별 술수를 다 쓰면서 얼마나 발악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어떻게 하나 제년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대중적투쟁을 《북의 조종》에 의한것으로 몰아붙여 진보와 보수의 리념대결로 돌려놓고 보수지지층을 규합하여 불리한 형세를 조금이라도 수습해보려는것이 박근혜년의 교활한 속내이다.

역도년의 《대국민담화》니 뭐니 하는것들 역시 이러한 음흉한 기도에서 출발한 오그랑수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년의 독사같은 기질과 간교한 기만술수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

보수패당이 유치하고 비렬한 《북풍》조작, 《종북》소동으로 남조선민심을 기만하고 위기를 모면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보수패당이 아직도 해질대로 해진 걸레짝같은 《북풍》모략광대극에 기대를 걸고 잔명을 부지해보려 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무지하고 가소로운 일은 없을것이다.

민심을 거스르는자 천벌을 면치 못한다고 하였다.

산송장이 된 천하의 악녀 박근혜년은 물론 추악한 공범자집단인 보수진영을 송두리채 쓸어버리려는것이 남조선 각계층의 단호한 투쟁의지이다.

《북풍》조작으로 살구멍을 찾아보려는 괴뢰보수패당의 어리석은 망동은 쌓이고쌓인 민심의 분노를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뿐이다.

주체105(2016)년 12월 1일

평 양

민심을 우롱하는 뻔뻔스러운 처사

분노한 민심의 초불바다에 포위되여 섬처럼 고립된 청와대에 틀어박혀 버티기를 하던 가련한 늙다리암캐가 지난 11월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종이 한장에도 차지 않는 《담화문》을 무려 4분 30초동안이나 떠듬거리며 읽은 청와대의 백치는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은채 황급히 달아뺐다.

《새누리당》패거리들이 자못 침통한 표정으로 《사실상의 하야선언》이라고 광고한 역도의 《대국민담화》발표놀음은 현 위기사태에서 어떻게 하나 빠져나오려는 교활한 오그랑수로서 아직도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민심을 우롱하며 거역해나서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처사이다.

역도년이 이번에 넝마같은 제 몸값올리기에 치중한것을 보아도 그렇다.

박근혜역도는 《백번 사과》해도 민중의 실망과 분노를 풀어드릴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내린다.》느니 뭐니 하고 넋두리질을 하고는 제년이 지금껏 《단 한순간도 사리사욕을 품지 않았》으며 이번 특대형추문사건도 《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탓》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교활하게 둘러댔다.

과시 세상에 둘도 없을 박근혜식몸빼기가 아닐수 없다. 독사의 아가리에서는 독밖에 나올것이 없는 법이다.

박근혜역도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던 끝에 내린 결론》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내뱉은 수작도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대통령〉직임기단축》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긴다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안정된 〈정권〉이양방안》을 내놓으면 그에 따라 물러나겠다는것이다. 역도가 남조선 각계가 한결같이 요구하는 즉시퇴진에 대한 립장표명은 없이 《임기단축》이라는 교활한 낱말을 고안해내고 그와 관련한 문제를 《국회》에 밀어버린데 대해 사람들은 아연함을 금치 못하고있다. 반드시 언급해야 할 제년의 책임문제를 회피하고 이번 추문사건의 성격을 오도하였으며 《국정》혼란과 공백을 구실로 퇴진문제에 조건부를 달았기때문이다.

괴뢰역도가 모든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긴다고 수작질한것은 《국회》에 공을 넘겨 여야싸움을 유도함으로써 탄핵정국을 흐트러놓으며 그 틈에 시간을 얻어 보수세력을 재집결시키고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교활한 술책이다.

원래 사과라면 죽기내기로 싫어하는 청와대악녀가 세번째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것은 민심의 드세찬 압력에 더이상 견디기 어려웠기때문이다.

지금 괴뢰역도의 처지는 비참하기 그지없다. 남녘민심의 분노한 초불은 강추위속에서도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가 박근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격랑의 주간》이 될것이라고 평하였다.

급해맞은 역도년이 서둘러 《대국민담화》발표라는 신파극을 또 연출하였지만 역시 졸작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박근혜역도의 제3차 《대국민담화》에 대해 《반성과 참회가 없는 담화》, 《탄핵국면에서 탈출하려는 오그랑수》, 《〈식물대통령〉의 임기연장수단》이라고 강력히 단죄하고있다.

박근혜역도가 살구멍을 찾으면서 지랄발광을 해도 판은 이미 글렀다.

얼마전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박근혜가 아무리 요사를 떨어도 저지른 죄가 없어지지 않으며 민중의 동정심을 구하기에도 때가 늦었다고 하면서 선택은 오직 하나,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졸개들조차 《잘못 뽑았다.》, 《자괴감이 든다.》고 하면서 도리머리를 치는 판에 상여를 쌓아둔 도가집같은 청와대에서 안나오겠다고 뻗쳐야 소용이 있는가.

그런즉 여위고 구부정한 청와대의 늙다리마녀에게 다른 길이란 없다. 이런 미련, 저런 미련 다 버리고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달게 받는 길만이 있을뿐이다.

허 영 민

퇴진을 모면하려는 간교한 술책

남조선언론들이 규탄

보도들에 의하면 11월 29일과 30일 남조선언론들이 박근혜역도의 《대국민담화》를 위기모면과 집권연장을 위한 정치적술수로 신랄히 폭로규탄하였다.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는 사설에서 2차 《대국민담화》이후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100만명이 훨씬 넘는 민중이 모여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였으나 정작 입을 연 《대통령》은 자기는 아무 잘못한것이 없고 《국회》가 퇴진로정도를 만들어주면 따르겠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에게 무슨 권위와 권한이 남아있는줄 아는 모양이라고 조소하였다.

박근혜는 최순실과 공모하여 온갖 범죄를 저질렀으며 주변에 온통 범죄자들만 모아놓고서도 검찰이 제시한 시한까지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거짓말만 벌써 세번째 꺼내놓은셈이라고 신문은 단죄하였다.

신문은 민중의 뜻은 간결하다, 지금 당장 퇴진하라는것이다,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수 있는 방안》은 박근혜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박《대통령》의 임기 내내 《국정》은 혼란했고 늘 공백이였다, 안정된 《정권》이양을 말할 자격이 박근혜에게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전두환독재《정권》이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수용하는 퇴임수로 야권의 분렬을 유도하고 군사독재연장에 성공한 1987년 6월의 교훈은 민중에게 박근혜가 이번에 《하야》를 거론하면서 숨겨둔 공작적기도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CBS》방송은 박근혜가 이번에 지난 1, 2차 《담화》발표때와 몸차림은 같지만 표정은 상대적으로 밝았다는데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방송은 임기단축을 포함한 퇴진문제를 《국회》결정에 맡기겠다는것은 눈앞에 다가온 탄핵부터 일단 피해보려는 시간끌기술책이라고 비난하였다.

특대형정치추문사건과 관련한 박근혜의 망언들은 검찰수사에 대한 거듭된 반발이자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겨냥한 반박론리라고 방송은 까밝혔다.

《대통령》의 임기단축은 《하야》나 탄핵, 《개헌》으로 가능한데 박근혜는 이 3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방송은 비난하였다.

《경향신문》은 《참으로 뻔뻔하고 무지막지한 박근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는 한마디로 《나는 잘못한것이 없지만 물러나라고 하니 국회에서 알아서 해달라》는 식이라고 비난하였다.

퇴진시기도 밝히지 않았고 사과와 반성도 검찰수사에 대한 언급도 없었으며 그러면서도 그 무슨 《국민을 위한 선의》타령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고 신문은 규탄하였다.

신문은 임기단축이란 말부터 해괴한 표현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자기는 잘못해서 물러나는것이 아니라 《개헌》같은 정치변동에 따라 임기가 단축되여 퇴임하는 형식을 밟겠다는 의미로서 《개헌》론으로 야권을 분렬시키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술책이라고 단죄하였다.

무엇보다 박근혜가 《대통령》자리에 더 버틴다는것자체가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신문 《한겨레》도 《대통령, 〈간교한 술책〉으로 퇴진 모면할수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는 민중의 기대를 또다시 배반하며 사회를 더욱 큰 실망과 분노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하였다.

퇴진문제는 박근혜 스스로 결단하면 끝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치권에 떠넘긴 리유는 자명하다고 하면서 박근혜는 물러날 뜻이 눈곱만큼도 없었다고 사설은 단죄하였다.

사설은 《국회》에서 퇴진결정이 이루어지려면 야당들뿐아니라 《새누리당》까지도 동의해야 하는데 박근혜가 불가능한 일을 《국회》에 주문하여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하는것이라고 폭로하였다.

만일 《국회》가 박근혜의 술책에 빠져 허우적거릴 경우 초불은 더욱 거대하게 타오를수밖에 없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력사의 진실에 칼질을 하며 최후발악하는 박근혜패당을 시급히 매장해버려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박근혜패당이 대문밖이 저승길인 가련한 신세에 력사의 진실을 외곡하면서 파쑈독재와 사대매국으로 얼룩진 죄악의 력사를 미화해보려고 발악하고있어 민심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고있다.

지난 11월 28일 괴뢰교육부는 《국정력사교과서》검토본이라는것을 인터네트를 통해 공개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괴뢰들은 《국정력사교과서》검토본에 대한 《의견》을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인 다음 《보충완성》과정을 거쳐 다음해 3월경에 남조선전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들에서 적용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력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배격하는 남조선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대세의 흐름에 공공연히 역행하는 또 하나의 극악한 망동이다.

이번에 공개한 《국정력사교과서》검토본으로 말하면 지난해 10월 박근혜패당이 지금까지 리용하고있는 력사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고 하면서 괴뢰국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력사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국정교과서제》라는것을 발표한데 따라 만들어진것이다.

괴뢰들은 지난 시기의 력사교과서가 우리에 대해 《관대한 서술》을 하였다고 떠들어대면서 이번 《국정력사교과서》라는데 《북의 핵 및 인권문제》,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 등 비난자료들을 배로 늘여 박아넣었는가 하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리정표를 세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에 박정희의 독재정치와 친일관련내용들에 대한 언급은 극력 줄이고 박정희역도의 그 무슨 《경제개발성과》니, 《전세계에로의 새마을운동 확산》이니 하며 역도의 《치적》을 내세우는 내용들을 추가하였으며 친일파라는 표현은 《친일인사》로 바꾸어 서술하면서 친일매국행위를 미화하거나 덮어버리였다.

명백해진바와 같이 《국정력사교과서》라는것은 제 애비의 명예를 회복하고 친미, 친일죄악과 파쑈독재를 정당화하려는 박근혜의 흉심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외곡교과서이다.

특히 《북의 핵과 인권문제》니, 《도발》이니 하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내용들을 박아넣은것은 력사교과서 《국정화》놀음의 대결적목적과 범죄적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보여주고있다.

박근혜패당은 이따위 엉토당토않은 교과서를 력사전문가도 아닌 문화재청이니, 동북아력사재단이니 하는 괴뢰정부기관의 어용학자들을 발동하여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날림식으로 만들어냈을뿐아니라 그러한것마저 《국사편찬위원회》라는데서 저들의 입맛에 맞게 다시 가공하여 검토본이라며 내놓았다.

경악스러운것은 이번 《국정력사교과서》편찬놀음에 인간오작품에 불과한 최순실과 그 패거리들이 《수석》이요 뭐요 하며 끼여들어 핵심적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선무당에게 놀아나 남조선사회를 아비규환의 란무장으로 만들어놓은 박근혜년이 최순실과 그 패거리들을 력사교과서 《국정화》놀음의 돌격대로 내세워 민족사까지 우롱하게 하였으니 실로 개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제반 사실은 박근혜패당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반동적인 력사관과 동족적대감을 주입하여 그들의 자주의식을 싹부터 잘라버리고 남조선사회의 보수화, 반동화를 대를 이어 조장시키려고 얼마나 발광적으로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사회 각계는 《친미, 친일, 독재미화교과서》,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효도교과서》, 《박근혜, 최순실게이트교과서》등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터치면서 《즉각폐기》, 《력사교과서국정화철회》, 《박근혜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야당들은 《국정력사교과서저지특별위원회》와 같은 항의단체들을 내오고 력사교과서 《국정화》가 강행될 경우 교육부 장관의 《국회》출석금지, 해임추진, 교육부폐지 등 모든 조치들을 취할것이라며 공세를 들이대고있다.

급해맞은 괴뢰패당은 《균형있는 력사관을 가질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느니 뭐니 하고 우겨대는가 하면 《기존력사교과서와 섞어쓸수 있는 방안검토》와 《국정교과서적용기간 연장》에 대해 떠벌이며 분노한 민심을 눅잦혀보려고 발악하고있다.

괴뢰패당이 《국정력사교과서》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는것을 비공개로 벌려놓은 자체가 도적이 제발저린 격의 궁색한 놀음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패당이 아무리 발악해도 력사의 진실은 가리울수도 지울수도 없는 법이다.

파쑈독재와 사대매국으로 얼룩진 죄악의 력사를 미화하면서 되풀이하려고 발광하는 역적패당은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새 세대들에게 올바른 력사관과 민족관을 심어주어야 할 력사교과서마저 추악한 정치적야욕실현의 도구로 악용하는 박근혜패당의 발악적책동이야말로 스스로 무덤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 아닐수 없다.

명줄이 끊어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제 할짓은 다 하겠다는 이런 역도년을 하루라도 더 살려두면 둘수록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그만큼 증대될것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박근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것마다 재앙이다.》라고 분노를 터치면서 기만적인 《대국민담화》발표놀음을 벌려놓고 어떻게 하나 권력을 지탱해보려고 발악하는 박근혜년을 청와대에서 내쫓기 위해 투쟁의 초불을 더 높이 추켜드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민족의 재앙거리는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력사의 진실에 칼질을 하며 최후발악하는 박근혜패당을 파멸의 무덤속에 시급히 처박고 력사교과서에 정의와 진리의 새 력사를 써나가야 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12월 1일

평 양

박근혜를 끝장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자

남조선 전지역에서 《1차 총파업 및 시민불복종의 날》운동 전개

【평양 1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부정추문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퇴진을 거부하는 박근혜역도를 반드시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1차 총파업 및 시민불복종의 날》운동이 11월 30일 전지역에서 일제히 전개되였다.

민주로총은 전지역의 16곳에서 친재벌정책으로 로동자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괴뢰집권자의 퇴진과 정책폐기를 위한 총파업에 일제히 돌입하였다. 22만여명의 로조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서울광장에서는 2만여명의 로조원들의 참가하에 총파업집회가 진행되였다. 공무원로조와 교직원로동조합은 세종문화회관과 청계광장에서 각각 결의집회를 가지고 서울광장까지 행진하여 집회에 합류하였다. 상인 1 500여명이 일제히 시민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민주로총의 총파업집회에 합세하였다.

각계층 군중이 모인 가운데 시작된 집회에서 민주로총 위원장직무대행은 박근혜는 임기단축이 아니라 즉시 퇴진시키고 구속해야 할 범죄자라고 단죄하였다.

오늘의 총파업과 시민불복종행동은 박근혜《정권》이 마지막으로 갈 길을 내기 위한 투쟁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그는 투쟁이 항쟁으로, 항쟁이 혁명으로 발전하고있는 오늘 총파업과 민중의 초불항쟁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호소하였다.

집회에서는 선언문이 랑독되였다.

선언문은 총파업의 기발이 날리고있다고 하면서 이 기발은 박근혜의 즉시퇴진, 박근혜정책의 완전폐기를 요구하는 기발이자 로동자민중의 새로운 미래를 알리는 기발이라고 지적하였다.

선언문은 박근혜의 퇴진이 부정하고 무능한 권력자 한명의 퇴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로동자민중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세상,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수 있는 세상, 정의와 평등, 민주주의가 넘치는 새로운 세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언문은 오늘을 시작으로 박근혜를 끝장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기 위한 더 큰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을 향해 거리행진을 벌렸다. 주요재벌사건물들을 따라 시위행진을 하며 참가자들은 관련건물들에 항의구호들을 붙이거나 글을 쓰면서 권력을 등에 업고 로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재벌들의 탐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날 동맹휴업을 선포한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정의와 민주주의를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자고 하면서 《강의실이 아닌 거리로 갑시다》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더이상 못 참겠다, 지금 당장 퇴진하라.》,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웨치며 광화문광장으로 향하였다.

시민사회단체련대회의는 《범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의 날》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가 즉시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단체는 거리행진을 하여 광화문광장에 이르렀다.

민주로총을 비롯한 광범한 각계층 군중이 집결하자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주최로 《1차 총파업 및 시민불복종의 날》초불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시국발언, 문화공연 등을 통해 박근혜의 로동개악정책을 비롯한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면서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함성을 터쳤다.

이어 참가자들은 청와대앞 200m까지 시위행진을 벌렸다.

한편 총파업투쟁과 각계층의 시민불복종운동이 민주로총의 산별, 지역별 로조들, 각계층 단체들에서 적극 벌어졌다.

보건의료로조는 민주로총의 총파업집회참가에 앞서 전지역의 병원별로 파업출정식을 가지였다.

이를 비롯하여 로조에 소속된 각 지역단체들은 병원별로 환자, 지역주민들과의 련대하에 박근혜퇴진을 위한 초불집회, 선전사업, 서명운동 등을 벌리였다.

보건의료로조 울산경남지역본부는 《새누리당》경남도당사앞에서 시국선언운동을 진행하였다.

한양대학교 의료원지부는 출정식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과 함께 병원주변에서 거리행진을 한 후 민주로총의 총파업집회에 참가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지부는 전체로조원수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시국선언운동을 벌리였다.

전라남도에서는 전남대학교병원지부가 병원앞에서 수천명의 참가하에 시국선언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근로복지공단로조 인천, 대구, 대전, 안산, 순천, 남원병원지부들은 파업출정식에 이어 시국선언운동, 괴뢰대통령을 조소하는 운동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민주로총 경남본부도 농민, 시민단체들과 함께 창원시청앞에서 박근혜의 즉시 퇴진, 박근혜정책 전면 폐기를 위한 총파업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부정적으로 당선된 박근혜를 처음부터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순간에도 박근혜는 1%의 재벌들과 4%의 지지률로 버티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어 집회참가자들은 《박근혜 즉각 퇴진!》등의 구호판을 붙인 뜨락또르를 몰고 《새누리당》경남도당사앞까지 《박근혜 퇴진과 구속, 새누리당 해체를 위한 대행진》을 하여 그곳에서 초불집회를 가진 후 자동차와 승용차들로 차량시위를 하였다.

울산에서는 민주로총지부가 총파업집회를 가지고 초불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박근혜가 퇴진할때까지 2차, 3차 총파업을 벌리며 투쟁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금속로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사업부별로 총파업을 선언하고 집회를 가진 후 시위행진을 하였으며 여기에 현대중공업로조와 금속로조 울산지부가 합류하였다.

박근혜퇴진 울산시민행동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의 《대국민담화》가 기만술책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것은 100만, 200만 초불과 민중의 퇴진요구를 거부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단체는 박근혜가 즉시 퇴진하고 《국정》문란의 공범인 《새누리당》도 해산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만적인 《담화》에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을 정하고 더 강력한 항의투쟁에 나설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민주로총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와 전라남도 순천에서 각각 총파업집회를 가지였다.

금속로조, 공공운수로조, 건설로조, 보건의료로조, 전국학교비정규직로조를 비롯한 산별로조성원들 5 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집회들에서 발언자들은 불의한 권력에 맞선 《정권》퇴진투쟁의 기발을 올렸다고 하면서 총파업과 시민불복종행동으로 박근혜《정권》을 반드시 단두대에 세우겠다고 토로하였다.

인천에서는 공공운수로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시국초불집회를 가지고 《박근혜, 최순실 추문사건》의 본질은 《정권》과 재벌이 특혜와 돈 몇푼으로 로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거래한것이라고 성토하였다.

박근혜퇴진 대전운동본부는 《새누리당》대전시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가 또다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중을 모욕하고 민중의 뜻을 거부한데 대해 용서할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야당들이 시급히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중의 요구에는 박근혜퇴진, 《새누리당》해체외에 더는 없다고 선언하였다.

제주도에서는 박근혜《정권》퇴진 제주행동, 공공운수로조 제주지역본부를 비롯한 단체들이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밖에 농민들은 각 지역별로 로동자들의 총파업 및 각계층의 초불집회들에 합세하였다.

농민회총련맹 전북도련맹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의 이번 《대국민담화》는 결국 탄핵을 피하기 위한 술책일뿐이라고 하면서 그가 즉시 퇴진할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단체는 뜨락또르와 자동차들을 몰고 민주로총 전북본부의 총파업결의집회에 참가하였다.

장애자들은 박근혜퇴진, 생존권보장을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롱성투쟁에 돌입하였으며 중소기업가들은 시민불복종공동행동을 가지였다.

이날 미국, 프랑스, 스위스, 뉴질랜드, 카나다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있는 괴뢰대사관들앞에서 민주로총의 총파업에 련대하는 국제로동계의 련대행동들이 있었다.

남조선언론들은 《민주로총 총파업 박근혜 즉각 퇴진… 시민불복종운동 돌입》, 《박근혜 담화는 기만과 꼼수, 즉각 퇴진을》, 《박근혜, 즉각 퇴진하고 심판받아!》등의 제목으로 이날의 투쟁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뿌리깊은 미일의 침략적공모결탁

미제가 조선에 대한 일제의 강점정책을 최종적으로 담보해준 범죄적인 《루트-다까히라협정》이 조작된지 108년이 되였다. 날강도적인 이 《협정》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롱락한 미일의 죄악을 고발하는 또 하나의 증거물로서 오늘도 전체 조선민족의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오래전부터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던 미국과 일본은 침략적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공모결탁하기 시작하였다.

1905년 7월에는 미국이 일제의 조선강점과 지배권을 인정하는 대신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지배에 간섭하지 않겠다는것을 호상 약속하는 《가쯔라-타프트협정》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가쯔라-타프트협정》에 토대하여 미국의 지지비호밑에 다른 렬강들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그해 11월에 《을사5조약》을, 1907년 7월에는 《정미7조약》을 날조함으로써 주권국가로서의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빼앗아냈다. 조선을 통채로 집어삼키려는 야망이 각일각 현실로 다가오고있을 때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저들의 조선강점에 대한 최종적인 담보를 받으려고 획책하였다.

1908년 11월 30일 워싱톤에서 미국무장관 루트와 미국주재 일본대사 다까히라는 각서교환형식으로 쌍방이 《태평양방면에서의 현상유지》를 옹호한다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강점, 《관동주》(료동반도에 있은 일제의 조차지)의 강점과 만주에서의 특권 등을 인정하고 일제는 미제의 필리핀강점과 중국에서의 《특수리익》을 승인한것이였다. 《협정》체결후 일본은 더욱 살기등등하여 날뛰였으며 마침내 1910년 8월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승냥이와 늑대가 고기덩어리를 놓고 흥정하듯 제멋대로 다른 나라의 신성한 령토와 민족의 운명을 유린롱락한 《루트-다까히라협정》은 앞서 체결된 《가쯔라-타프트협정》과 함께 미제국주의의 강도성과 음흉성, 큰 나라를 등에 업고 감행하는 일본군국주의의 체질적인 침략악습과 간특성이 결합된 추악한 공모결탁의 산물이였다. 이 침략적이며 날강도적인 문서로 하여 우리 민족은 오랜 기간 가장 흉악한 미일 두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되여 군사적강점과 식민지지배, 분렬의 비극과 전쟁참화 등 온갖 치욕과 수난을 다 당해야 했으며 민족적발전을 심히 억제당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침략적인 공모결탁의 력사는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확립을 세계제패전략실현의 필수적조건으로, 관건적고리로 내세우고있는 미국은 전패국인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재무장화를 적극 부추겨 침략적대아시아전략실현에 써먹으려 하고있다. 일본의 무분별한 망동들을 눈감아주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를 긴장시켜 지역에 대한 무력간섭과 침략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고 군사적강권을 발동하여 아시아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일본반동들은 상전인 미국의 대아시아지배전략실현에 편승하여 침략무력을 본격적으로 증강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독도를 《제땅》이라고 우겨대는 한편 과거청산을 집요하게 회피하면서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 력사외곡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교전권과 참전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규제한 헌법 9조를 개악해보려고 발광하고있으며 《평화유지활동》이라는 미명하에 해외에로의 무력파견놀음을 뻐젓이 벌려놓고있다. 전후 일본에서 해외침략과 령토팽창을 위한 책동들이 감행되지 않은적이 없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분별을 잃고 로골적으로, 강도높게 벌어진적은 일찌기 없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미일동맹강화를 보다 요란스레 떠들면서 지휘관리, 통신보장체계 등 모든 군사분야들에 대한 일체화를 다그치고있으며 모험적인 미싸일방위체계조작책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있다. 미일의 이 모든 책동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파괴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 교란하는 커다란 우환거리로 되고있다.

더우기 오늘날 우리 공화국을 노린 미일의 추악한 공모결탁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미국과 일본은 당치않게도 있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설과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여론화하면서 대조선위협공갈과 제재압박에 미쳐날뛰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하기 위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워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하고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와 부추김을 받고있는 일본반동들은 숭이 나서 우리 나라에 대한 선제공격망발까지 서슴없이 내뱉으면서 무력증강에 날뛰고있다.

지금 미일이 서로 공모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벌려놓고있는 파렴치한 추태는 바로 100여년전에 있었던 침략적공모결탁을 련상케 하고있다.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이 세력권확장을 위하여 정치적흥정을 벌리면서 공모결탁하였다면 오늘은 전조선반도를 집어삼키고 대륙에로 진출하려는 공통된 침략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반공화국공모결탁을 강화하고있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예측할수 없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미제와 일본반동들이 침략적대조선공모결탁을 통해 지배야망을 이루어보려는것은 망상중의 망상이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장구한 투쟁을 통해 힘이 약하면 날강도들이 제땅을 놓고 흥정하며 가로타고앉아도 가슴만 쳐야 하고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뒤집어써야 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다시는 제국주의자들의 강도마우에 올라 란도질당할수 없으며 그러자면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신념으로 새기고있는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인민이다. 불변의 이 정신, 이 신념이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으로 세계무대우에 거연히 솟구쳐오르게 하였다.

오늘 미일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쑤격멸의 의지는 날로 백배해지고있다.

만일 미국과 일본이 서로 결탁하여 계속 무모하게 날뛴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기를 이어 다지고다져온 선군의 위력으로 침략의 아성들을 송두리채 초토화해버리고 범죄로 얼룩진 미일의 죄악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야 말것이다.

안 철 권

나라의 꽃,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는 조선의 녀성들과 어린이들

외국인들의 반향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는 우리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행복에 넘친 모습을 목격한 외국의 벗들이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라오스녀성동맹대표단 단장 인따완 캐우분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에는 녀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기지도 그쯘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아동병원도 현대적으로 꾸려져있다.

또한 어머니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세쌍둥이, 네쌍둥이들도 나라에서 맡아 키워주고있으며 녀성들의 가정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상급의 보육기지들도 수많이 일떠세워주고있다.

정녕 이 모든것은 녀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신 조선의 선대수령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만이 펼쳐주실수 있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이다.

로씨야소년야영단 단장 따찌야나 쿨리무크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고싶어하는것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나도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교육조건이 훌륭한 학교와 야영소에도 보내고싶고 취미와 소질에 따라 자기의 희망을 한껏 꽃피우도록 해주고싶다.

그러나 이것은 어머니의 정과 사랑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조선에서는 어머니들의 이 소원이 실현되고있다.

모든 아이들이 국가의 부담으로 공부도 하고 전문교육기지들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을뿐아니라 희한하게 꾸려진 야영소들에서 세상에 없는 복을 누리고있다.

진정 조선이야말로 우리 어머니들이 꿈속에서나 그려보던 아이들의 락원이다.

페루근로자총련맹대표단 단원 페르페뚜아 메히아 에체바리아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이 사회적차별과 각종 폭력의 희생물로 되고있지만 사회주의조선에서는 나라의 꽃,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고있다, 평양산원,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현대적인 병원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 그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조선인민의 기쁨의 웃음소리, 환희의 노래소리가 이르는 곳마다에서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고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나이제리아소년야영단 단장 보보 라비 아부바카르는 송도원국제소년야영의 나날 후대들에게 돌려주시는 김정은각하의 뜨거운 사랑을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수많은 야영생들이 한데 어울려 밝게 웃고 떠드는 모습에서 내 자식들을 보는것만 같아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이시야말로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자애로운 친어버이이시다.

위대한 태양의 품에서 만복을 누려가고있는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조선중앙통신】

나라의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

오늘 라오스인민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1975년 12월 2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창건이 선포되였다. 공화국의 창건으로 라오스인민은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공화국창건후 지난 41년간 라오스인민은 라오스인민혁명당의 령도밑에 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 나라의 대외관계발전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다.

새 세기에 들어와 라오스는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제10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보다 강도높게 벌릴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있는 각이한 형태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현상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된다. 국가관리사업을 개선하고 사법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지고있다.

라오스인민은 당 제10차대회 결정관철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제8차 5개년사회경제발전계획(2016년-2020년)과 10개년사회경제발전전략(2016년-2025년)수행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전력부문발전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지난 20년동안 나라의 총전력생산능력을 현저히 높인데 기초하여 수력발전소들을 더 많이 건설함으로써 2030년까지 주민의 98%가 전기를 사용할수 있게 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환경보호를 위해 2020년까지 약 820만ha의 면적에 나무를 심을것을 목표로 한 산림조성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산림람벌을 막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라오스정부는 대외적으로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동남아시아나라들을 비롯한 주변나라들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라오스인민들의 투쟁은 앞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박 예 경

군대와 인민이 철통같이 뭉친 나라

로씨야신문의 글

로씨야신문 《콤소몰스까야 쁘라우다》 11월 21일부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을 모시고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과거 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되였던 조선은 세계지도에서 빛마저 잃은 식민지약소국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1950년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이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을 때 세계는 조선의 운명에 대해 우려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을 뒤집어놓았다.

조선전쟁은 건국이래 110여차례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의 패전도 몰랐다는 미국의 수치스러운 첫 패배로 막을 내렸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좌절되던 지난 세기 말엽 서방언론들은 조선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를 수호하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시대를 펼쳐놓았다.

그를 알리는 장엄한 포성인듯 1998년 8월 조선의 첫 인공지구위성이 우주로 날아올랐다.

조선에 대한 예상과 예측이 빗나가군 하는것은 국제사회가 이 나라를 잘 모르는데 있다. 다시말하여 다른 나라들과 같은 자막대기로 조선을 재보려는데 오유의 근본원인이 있다.

조선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대로 걸출한 수령을 모시고있으며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철통같이 뭉친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조선이 이룩한 모든 기적적인 승리와 성과들은 바로 여기에 기인된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무능력을 조소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최근 한 외교석상에서 미국의 무능력을 조소하였다.

그는 미국의 반테로캄파니아는 실패작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라크나 수리아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활동하는 테로분자들을 소멸할 의향도 능력도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서방의 그릇된 처사를 규탄

로씨야외무성 공식대변인 마리야 자하로바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테로분자들이 수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고있는데 대해 미미한 반응을 보이고있는 서방나라들을 규탄하였다.

그는 최근 알레뽀의 동부에서 염소가스가 들어있는 폭탄이 폭발하여 약 30명의 군인들이 중독된 사실과 서부에서 염소와 린이 들어있는 불발탄들이 발견된데 대해 폭로하였다.

주목되는것은 악당들이 화학물질을 사용하였다는 증거에 대한 서방정치인들의 아주 미미한 반응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 증거야말로 테로를 일삼는 수리아의 비법적인 무장무대들을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투사들》의 무대로 두둔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목에 걸린 가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유엔인권리사회의 부당한 처사 비난

부룬디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유엔인권리사회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였다.

최근 유엔인권리사회가 부룬디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인권전문가》들을 임명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자기 나라정부가 그들을 환영할수 없는 인물들로 선언하였다고 밝혔다.

유엔이 《인권전문가》들을 파견하여 부룬디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것은 신식민주의적인 행동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시위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11월 25일 백인경찰의 살인만행을 규탄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2년전 시에서 백인경찰이 17살 난 흑인청년을 총으로 쏘아 무참히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많은 각계층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흑인들의 생명이 문제다》, 《미국에는 정의도 없고 흑인들의 리익도 없다》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경찰들의 불법무도한 살인행위를 단죄하고 살인자들을 처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11월 24일 당국의 부당한 긴축조치를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2만명의 보건 및 문화부문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거리들에 떨쳐나 시위행진을 벌리면서 정부가 취하고있는 긴축조치로 근로자들의 처지가 날로 악화되고있는데 대해 항의하였다.

시위로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꾸바의 자주권과 안전의 수호자

오늘은 꾸바혁명무력절 60돐이 되는 날이다.

1953년 7월 바띠스따독재정권의 군사요충지의 하나인 몬까다병영습격을 봉화로 하여 무장투쟁의 봉화를 추켜든 꾸바혁명무력은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자기의 투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였다. 메히꼬에서 유격투쟁준비를 마친 꾸바혁명가들은 피델 까스뜨로 루스동지의 인솔하에 1956년 12월 2일 《그란마》호를 타고 조국땅 오리엔떼주에 상륙하였다.

무장투쟁을 전개한 꾸바의 혁명가들은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끝에 친미파쑈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꾸바군대와 인민은 《그란마》호를 혁명의 상징으로 간주하고있으며 혁명가들이 오리엔떼주에 상륙한 력사적인 12월 2일을 꾸바혁명무력절로 정하고 해마다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혁명승리후 꾸바에서는 꾸바공산당의 령도밑에 영광스럽고 긍지높은 자랑찬 승리의 력사를 수놓아왔다. 무지와 몽매, 빈궁과 락후만이 지배하던 꾸바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배우고 일하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룩되여 꾸바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꾸바군대는 높은 애국심과 조국수호정신을 가지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다.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있으며 전투정치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고 자기 식의 현대적인 군사전법들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지난 11월 중순에 꾸바는 전국적규모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훈련에서 꾸바혁명무력은 미제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불굴의 의지와 군사적능력을 과시하였다.

지금 미국은 서반구에서 오랜 기간 사회주의의 기치를 변함없이 들고나가고있는 꾸바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꾸바혁명을 말살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재와 봉쇄, 회유와 기만으로 꾸바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사회주의신념을 꺾어보려고 발악하고있지만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미국이 반꾸바책동을 집요하게 벌릴수록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해나갈 꾸바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확고부동해지고있다.

꾸바혁명무력절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의 군사적침략과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며 나아가는 꾸바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전투적련대성을 보낸다.

본사기자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는 에이즈, 그 방지를 위한 노력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계속 성행하고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최근 유엔에이즈관련기구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지난해 세계적인 에이즈비루스감염자수가 약 3 800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한창 배우고 일할 나이의 청년들속에서 에이즈로 약 5만 5 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에서 에이즈비루스감염자수는 지난해 12월현재 120만명이상에 달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에서는 해마다 약 5만명이 이 비루스에 감염되고있다 한다.

그밖에도 많은 나라들에서 죽음의 병, 에이즈의 전파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있다.

이로부터 여러 나라 정부들에서 에이즈의 전파를 막는것을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이 사업에 국가적관심을 돌리고있다.

남아프리카정부는 지난 7월에 에이즈방지를 위한 5개년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보건기관들과 교육, 사법부문의 해당 기관들이 협동하여 에이즈와의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케니아에서는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까지 약 90만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으며 탄자니아에서 에이즈피해실태를 조사장악하기 위한 캄빠니야가 벌어지고있다.

나미비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검진 및 치료사업을 강화하여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잠비아에서는 앞으로 2년 남짓한 기간에 녀성들속에서 에이즈비루스감염률을 40% 줄일것을 계획하고있다.

최근년간 라오스에서는 에이즈치료시설을 새로 건설하여 조업하였고 스리랑카에서는 전사회적으로 에이즈예방을 위한 위생선전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인플레률 감소

-이란에서 11월 20일현재 인플레률이 7.5%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1개월전에 비해 0.4% 낮아진것이라고 한다.

11월 23일 이 나라 신문 《테헤란 타임스》가 밝혔다.

-말따에서 10월에 인플레률이 그 전달에 비해 0.37% 감소되였다.

11월 23일 이 나라 통계사무소가 밝혔다.

제조업부문에서 생산 증대

싱가포르의 제조업부문에서 10월에 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 증대되였다.

이 기간 의약품생산이 많이 늘어났다. 11월 25일 이 나라 경제발전위원회가 밝혔다.

윁남에서 상아 압수

윁남세관당국이 11월 24일 호지명시에 있는 항구에서 상아 밀수행위를 적발하였다.

철과 집합속에 숨겨져있던 약 620kg의 상아가 압수되였다.

세관당국은 지난 2개월동안에 이 항구에서 4t의 상아를 몰수하였다 한다.

테로반대투쟁 강화

에짚트의 수에즈도에서 최근 경찰이 사법안전기관들을 목표로 테로공격을 감행하려고 시도하던 10명의 무장악당을 체포하였다. 또한 이 나라 군대는 시나이반도의 북부지역에서 반테로투쟁을 강화하여 2013년 7월부터 지금까지 약 1 200명의 테로분자를 처단하였다 한다.

한편 11월 26일 필리핀군대가 라나오 델 수르주에서 16명의 테로분자를 살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몽골에서 집짐승방목

인권을 론할 자격도 못 가진 정치난쟁이의 추태

인두겁을 쓴 식인종들의 만행

일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삼으면서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도 못할 극악무도한 만행들을 저질렀다.

1940년대 태평양전쟁시기 일본의 오가사와라제도에는 다찌바나 유시오소장과 모리 구니조소장이 이끄는 일본륙해군혼성제1려단이 주둔해있었다.

한번은 부대장교들이 술판을 벌렸는데 안주가 모자라게 되자 다찌바나는 부하들에게 곧 처형하게 될 포로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였다. 그의 지시에 따라 부하들에게 사람고기를 공급하여 먹일데 대한 명령이 하달되였다.

다찌바나는 포로들을 죽인 후 자기가 먼저 저가락으로 사람고기를 찝어먹기 시작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장교들이 저마다 사람고기를 먹어댔다. 자기에게 차례진 고기를 다 먹고난 다찌바나는 《맛있다. 한접시 더…》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일제패망후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재판과정에 이와 관련한 증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경악하여 숨소리마저 죽였고 재판정은 물뿌린듯 조용해졌다고 한다.

당시 그들이 식량이 부족하거나 먹을것이 없어서 사람고기를 먹은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제의 야수적인 기질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부하들에게 사람고기를 먹인 일제침략군우두머리들이 부대의 전투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태평양전쟁시기 파푸아 뉴기니아에서도 일제식인종무리는 그런 끔찍한 야만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일제는 랭동시설이 없는 열대장글에 둥지를 틀고있으면서 포로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살을 도려내어 료리해먹고는 반쯤 살아있는 상태로 두었다가 하루이틀이 지나 내장을 도려낸 후 남은 사람고기를 마저 먹었다고 한다. 일제식인종들은 될수록 오래동안 《식량》이 부패되지 않도록 《자연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한다.

일제패망후 그와 관련하여 증언한 목격자들은 《…특히 포로는 오두막집으로 끌려가 산채로 살점이 도려진 후 구뎅이속에 던져져 죽어갔다. 살이 잘려나갈 때 그들은 무서운 비명을 질러댔다. 그러나 그 비명소리는 사람이 죽어갈수록 점점 약해졌다. 우리 포로들은 구뎅이에 접근하는게 일체 금지됐다. 시체에 흙도 덮어주지 않았기때문에 썩은 냄새가 끔찍했다.》라고 일제에 대한 사무친 원한과 분노를 표시하였다.

아페에 2006년부터 수년간 조사를 벌려 작성한 《밀리환초조선인저항사건과 일본군의 한암진상조사보고서》에 밝혀진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

1942년초 일제는 800-1 000명의 조선사람들을 비행장 등 군사시설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마샬군도 동남쪽끝에 있는 밀리환초로 강제로 끌고갔다. 크고작은 100여개 섬이 가늘고 둥근 띠모양을 이루고있는 이곳은 태평양전쟁당시 최전방의 군사적요충지였다. 원래 원주민 500여명이 살던 이 섬에 일본군과 강제징용된 조선사람들이 들어오면서 1944년초에는 그 인원이 5 300명을 넘어서게 되였다.

토질, 기후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미군의 공격으로 1944년 6월이후 식량보급마저 막히자 일본군은 어쩔수 없이 섬에 흩어져 먹을것을 구하거나 농경, 어로로 생존해야 할 형편에 처했다. 이러한 속에 1945년 2월 어느날 체르본섬에 있던 조선인 120여명이 감시목적으로 파견된 일본인 11명중 7명을 숲속으로 유인해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군이 조선사람들을 마구 잡아먹은데 대한 집단적인 항의였다고 한다.

1945년초 일제는 허기진 조선사람들에게 《고래고기》를 갖다주군 하였는데 그후 무인도에서 살점이 도려져 잔혹하게 살해된 조선사람들의 시체가 발견되군 하였다고 한다.

주변에서 자주 사람이 없어지는것을 이상하게 여긴 조선사람들은 그때에야 일본군이 사람을 살해하여 살점을 뜯어먹었고 자기들에게도 먹이였다는것을 눈치챘다.

이에 격분한 조선사람들이 일본군의 식인사건에 항의하여 나섰던것이다.

세계전쟁사에는 인간살륙전에 대한 기록들이 많고많지만 일제침략자들과 같이 사람까지 마구 잡아먹으면서 침략전쟁에 광분한 야만적인 식인종무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에 이런 끔찍한 죄악들을 저지르고도 그에 대해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있는 일본이 지금 《인권옹호자》의 탈을 쓰고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날뛰고있다.

인두겁을 쓴 식인종들의 후예들인 일본반동들이 인권을 론한다는것은 인류량심에 대한 모독이다.

정 원 준

ㄱ-61194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